

자신을 철저히 보아야



혜산 스님

(내소사 회주)



혜산 스님은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승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후학들을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런 사람들이 법문을 잘 못하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죽이는 일이지, 자기 체면에서 우려나 시혜가 아니라 문자로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 체득해서 아는 것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단지 지식에 불과할 뿐이지, 체득해서 아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지식이고 이것을 ‘선지’라고 해요. 더구나 체득을 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알지 못하면 말하기 힘들지, 잘못 말하면 큰 일 나는 것인데 누가 함부로 입을 열겠어요. 그래서 스승을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선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속제 중 속제야.”

“스님 말씀대로라면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배워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묵마라고 아무 몰이나 말할 수 없잖아 여기저기서 물어라요. 참스승을 만나야만 해.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모르면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고,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수행자들이 찾는 그런 사람이야. 문고도 물어서라도 찾아가야지.”

혜산 스님이 유달리 스승을 강조하는 이유는 스님 스스로가 바로 그런 경우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혜산 스님으로부터 들은 스승(혜안 스님)의 가르침은 이랬다.

“스승께서는 수행에 철저히하셨지. 그렇다고 무조건 수행만 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농사 짓고 나무하면서 수행을 하게 하셨지, 그래서 공부시간이 더 아깝게 느껴졌어요.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경전을 가르치시는 것도 빼놓지 않으셨고요. 나와 내도반들은 자연히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지팡이나 젓가락 소리만 들어도 스님의 심경을 읽을 정도가 됐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게. 답은 간단해, 스승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관찰하고 계셨기 때문이지. 24시간 수행에 매달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하셨던 게야. 화두로 일어나고 먹고 자고 하도록 만들었지. 멋모르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작심하고 달려들었던

1월29일 내소사는 운봉 눈천지였다. 내소사가 위치한 전북 부안의 변산반도가 서해 절경을 불러 모은 곳이라고는 하지만 어디 내소사의 겨울 운치만 하라. 깎아지른 듯한 벼랑을 품은 산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그 아래 아담한 대웅전과 전각들이 넓지도 좁지도 않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으니 편안하고 아늑하다. 눈에 꼭 파묻힌 내소사를 보고 있자니 며칠 묵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일었다.

내소사 회주 혜산 스님은 내소사의 산 역사로 통한다. 그럴 만도 한 것이, 1963년 이곳에서 출가해 40년 세월 대부분을 여기서 살았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스님께서 수행하셨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후학들에게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들다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얘기에. 한 것도 없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느냐’ 중요 화두 참구 때는 교리 접는 것이 좋아



■ 혜산 스님

1933년 전북 정주에서 태어나 58년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63년에 내소사에서 혜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73년 법어사에서 구족계를 수계하고 74년에는 혜안사 해인총림 선원장을 맡아 후학들을 지도했다. 75년부터 79년까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교무국장, 종정 수석 사서, 조계사 주지,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이사, 안동선림 선원장, 동명불원 주지 등을 역임했다.

80년부터는 다시 내소사에 내려와서 후학지도와 내소사를 수행도량으로 꾸무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6>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는 고통에 가득 찬 세계에 살지만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가끔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있으면 인생이 고단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한다. 그리고 그때뿐이다. 그 고통을 이내 잊어버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생활하는 것이다. 얼마 전 이란에서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 엄청난 피해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지진만큼 많은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지만 작년 가을에 부산 등 남부 지방을 강타했던 태풍의 위력에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밤을 세우며 무사히 태풍이 지나가기만 바랐다. 지진과 같은 거대한 자연 재해 앞에 인간은 무력하기만 하다. 이런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부모 형제를 잃는 경우도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평안하게 보이던 인생이라는 것이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한 사고로 눈을 바다가 된다. 이런 삶의 불안한 모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보험을 들고 있지만 보험 회사가 위험을 막아주고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사람들은 보험을 들어 현실의 위험을 무시하고

있다. 눈은 보기에 좋은 것을 향해 달려나가고 귀는 듣기 좋은 소리를, 코는 좋은 향기를, 혀는 맛 나는 음식을, 몸(피부)은 부드러운 감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추구하는 쾌락을 오욕락이라고 한다. 조금 과격하게 말하자면 우리들은 이런 물질적인 대상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그래서 붓다는 활활 타오르는 불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대승불교 경전 중 <법화경>에도 이와 유사한 비유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불타고 있는 집에 비유하고 있다. 집이 불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헛된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이다.

중생은 위험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어리석게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경전을 하나 더 살펴보자.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불설비유경>은 널리 알려진 경전으로 우리나라 사찰의 벽면에 그 내용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 붓다는 우리 삶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 “어떤 청년이 광야에 놀다가 사나운 코끼리에게 쫓겨 황급히 달아나다가 한 우물이 있고 그 곁에 나무 뿌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곧 그 나무 뿌리를 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 때 마침 검은 쥐와 흰 쥐 두 마리

5욕락에 사로잡힌 중생의 삶은 ‘불타는 집’ 위험조차 망각하고 쾌락 빠져들면 죽음 뿐

있을 뿐이다. 붓다가 정각 후 얼마 되지 않을 때 설했다는 다음의 경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불로 비유하고 있다. 붓다는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생활이 화재의 현장이라고 단호하게 비유하고 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으로 위험받고 있는지 실감나게 하는 가르침이다. 불은 인도인에게 있어 가장 가까이 있는 고통이다.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눈은 불타고 있다. 색채와 형태는 불타고 있다. 눈의 식별작용은 불타고 있다. 눈의 접촉은 불타고 있다. 눈의 접촉에 의해 생기는 감수는 좋거나 나쁘거나 혹은 그 어느 쪽도 아닐지라도 그것 역시 불타고 있다. 무엇이 의해서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로, 혐오의 불로, 미혹의 불로 모든 것은 타오르고 있다. 출생과 노쇠, 죽음과 근심, 슬픔과 고통, 번뇌와 번민에 의해서 불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불로 타고 있지만 그 고통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을 알지 못하지만 욕망 등의 불같은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다. 우리 감각기관은 불쾌감을 조해하는 대상은 피하고 쾌락을 안겨다 주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가 그 나무 뿌리를 번갈아 갈아먹고 있었고, 그 우물 사방에 그리고 우물 밑에는 독사가 있었다. 그는 그 독사가 잠시 두려웠고 나무 뿌리가 끊어질까 걱정이었다. 그런데 우물 옆 나무에 달려 있던 벌집에서 떨어지는 벌알을 즐기면서 청년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나무 뿌리에 매달려 있는 청년은 바로 우리 중생을 대변하고 있다. 검은 쥐와 흰 쥐 두 마리는 발과 닮은 것으로, 나무 뿌리를 갉는 것은 순간순간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벌알은 5욕락에 비유한 것이다. 청년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떨어지는 달콤한 꿀에 탐닉해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망각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런 청년의 모습이 우리 중생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쾌락을 추구하면서 생명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5욕락에 사로잡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는 중생들에게 결국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디가 안전한 곳일까?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이상의 두 가지 비유는 먼저 인생이 고통으로 위험받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대담하고 있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월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면 증후,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산채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영약하옵는 스님, 오늘날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기차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몸에 精進하시옵기를 祈願 드리요!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을 드리우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본초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은 천종, 저종, 인종, 장미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미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산으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가는료를 주고 자라고 있습니다. 제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저종, 인종, 장미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미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산으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가는료를 주고 자라고 있습니다. 제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지역사상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검정(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2000만 불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성종사와 (주)비엔비기업**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범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기 켜 불가의 신개념 천자종소리』

가름빈가

※ 법당에 가름빈가를 설치하시면...

- 법문을 하실 경우 종 범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나오므로 정음한 법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가름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3개를 설치 할 수 있으므로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독경 및 법문 테이프, 명상가요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따로 오디오를 마련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 되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 종을 제외한 종틀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틀 교환도 가능합니다.
-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름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심물의 풍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전자음향종 및 실제 종을 결합한 한 화단의 제품으로 법회시에 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연만이세 원무직

● 문의처: 02-733-6141(대), 032-772-5451(대)

● 제품명: 가름빈가
● 제품특성: 국내 최초로 MP3를 내장한 전자시계로 100여 M 정도에서도 울창한 종소리 및 특이한 음원(특정 명성음악 외) 들을 45분 동안 울고 울고 임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 음성(스피커 3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법당 등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제품기능: 출력(영역종력 150W 이상, 최대출력 250W 이상)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계 변경, 알람시간조절, 일일적 작동, 불륨 조절, 기타), 디지털 시계 기능, 스피커 크기 - 6INCH 3개, MP3정착 - 45분(종소리 20조, 독경 40분만 정착), 오토리버스 기능, 불륨 조절 기능, 메모리 기능 - 메시지 기록 기능(타종 필수 조절 가능) - 일일기능 (3번 타종 기능, 예: 오전, 오후, 저녁) 전원부: DC24V (3A-SA 10), 마이크로 컨트롤러
● 사용방법: 리모콘으로 타종이 이루어져 모든 본질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 소비자가: 4,500,000원 (종소리+종틀+스피커3개+마이크+리모콘+가타+인체포함)
● 중재직업체: 성종사
● 전자 종틀제작업체: (주)비엔비기업

전국지사 및 판매점, 판매사원 모집 1. 초도지급 300만원 개설 가능 2. 무정모 창업가능 3. 불가에 뜻을 가지고 있는분 우대 www.bellkorean.com

